

지 방 소 식

경 북 판

대구축협

도계공장을찾아서

60년대 후반부터 전용육계의 보급과 국민소득의 상승으로 육계소비가 높아짐에 따라 닭고기의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육용계의 소비증대는 필연적으로 육용계 전업농장이 이루어지고 유통상황도 아울러 발달되고 도계과정의 위생적인 면을 고려하게 되어 대구축산협동조합에서는 사양농가의 생산물 판매를 위한 대책과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처리가공으로 육계의 보급을 위하여 1971년에 현재의 도계공장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가동중인 축협도계공장의 가동현황을 살펴보면 1일 처리능력 5,000수로 국내에 우수한 도계처리공장으로 개인이 경영하고 있으며 이를 육계공장의 운영실태를 보면 대부분 영리추구에만 치우친 나머지 이윤이 보장되는 시기에만 가동하는 등 사양농가의 경영이나 생산비 보장에 대한 하등의 대책이나 고려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항상 사양업자만 피해를 보는 현실이었으며 이러한 여파로 육용계 사양농가는 항상 판매에 대한 고충을 내포한채 사양을 하고 중간상인에 농락을 당하면서 업을 응시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형편이었다. 대구축협에서는 명실공히 양계업자를 위하고 양계농가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양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연중무휴로 육계를 가공 처리한은 물론 소비자에게 항상 위생적으로 깨끗이 가공 처리된 육류를 년중 계속공급하여 가격안정에 이바지하고 아울러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있다. 육계의 연중보급과 사양가가 생산한 닭의 처분을 위하여 대구축협에서는 계육과 사료를 연결하여 사양농가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매일매일 지역별로 수집차를 보내서 항상 필요로하는 수

집량을 확보하고 또한 가격의 하락을 막으며 생산과잉이나 비수요기에 생산된 닭은 가공하여 냉동저장하여 수요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육계 100,000kg의 저장능력을 가진 저장실에 비축하여 항상 가격의 기복에 대비하고 있다. 이상과같은 과정을 거쳐 수집되고 처리된 계육은 대구축협에서 개설한 대구 시내 요소 및 서울특별시내 대구 축협 육계 및 계란판매센타를 통해서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판매하고 있으며 양의 다과를 막론하고 도계 공장을 위시한 육계 및 계란판매센타에 연락만하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도록 연락 및 판매조직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체제를 이룩하고 운영하기까지 조합을 이루고 있는 조합원에서부터 사업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전임 직원들의 투철한 신념과 조합원 및 전양계업자를 위한 봉사정신의 결과이다. 특히 현재의 류종래 조합장의 탁월한 지도력과 전직원의 단결된 힘과 노력이 오늘의 대구축산협동조합으로 발전시켰고 지금의 창의적인 노력은 더욱 모범적이고 앞서는 축산인의 단체가 될 것이며 전국 축산인들의 염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대구축산협동조합의 사업은 바로 양계업계가 된 체바라는 숙원적인 사업이며 사업추진의 원동되어야 할 양계인 스스로의 사업인 것이다. 대구축산협동조합의 사업에 번영을 우리 경북 양계인 전체가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우리 양계인 스스로가 참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자체가 더욱 바람직스럽다.

1973. 1. ~ 73. 6. 30까지 실적.

73년 상반기 수집총량 203,947.3kg

상반기 수집금액 51,175,844원

상반기 판매실적 198,639.28kg

상반기 판매금액 63,413,903원

6월 31일 현재보축량 46,514.34kg

1973년도 계약 사육내용

계약인수 33명

계약수수 750,000수

73년 6.30 현재구입수수 201,000수